

“광주, 문화콘텐츠·SI 접목 신성장 동력 육성”

아·유럽 도시연대 시장회의서 문화창의 혁신도시 성공사례 발표 佛 메스시 ‘별자리 페스티벌’ 덴마크 오르후스시 ‘문화도시’ 소개

28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2019 아시아-유럽 도시연대 시장 회의’에서는 각 국 도시의 문화창의 혁신도시 성공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도시의 문화창의 혁신도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과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문화창의 산업 분야의 동반 성장 모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광주시를 비롯한 프랑스 메스시, 덴마크 오르후스시, 영국 웨스트 오브 잉글랜드시 등 4개 도시 시장과 부시장들이 나서 각 도시의 문화 창의산업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문화적 도시재생과 창의산업 육성을 위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광주시가 추진중인 광주형 일자리모델을 통한 대한민국 일자리 문화 선도, 인공지능(AI) 대표 도시 만들기, 문화적 도시재생 등을 소개했다. 이 부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지자체 주도의 사회통합형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한국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대한민국 일자리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주시는 문화콘텐츠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AI)의 기술과 접목시켜 독자적인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가고 있다”면서 “세계 5대 AI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부시장은 이어 “광주시는 새로운 주 거단지로 인구가 이탈되면서 기존 상권이 쇠퇴해가던 광주역과 광주의 대표적인 노후산단인 송암산단지역에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으로 새로운 활기를 부여할 것

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메스시 아센느 레카디르 문화부 시장은 ‘문화 창의산업의 최전선, 메스시의 혁신, 창의, 그리고 영감’이라는 주제로 메스시의 ‘별자리 페스티벌’(constellation de Metz)의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이 행사는 도시 공간에서 예술 및 디지털 창작물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이다. 지난 3년간 국제적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의뢰해 혁신적이고도 전격적이며 창의적인 라인업을 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3차례 공연 동안 140만명의 관람객이 행사를 찾았고, 프랑스 국내 뿐 아니라 국제 언론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 페스티벌은 프랑스의 주요 여름 문화행사도 자리 잡았고, 이를 통해 메스시가 가진 도시적 매력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덴마크 오르후스시 라비 알리 아자드 아마드 문화시민서비스 부문 시장은 ‘문화가 의제가 되는 국제도시 오르후스’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오르후스시가 2017년 유럽문화도시에 도전해 선정된 과정을 통해 오르후스시와 인근 지역이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 소개했다. 2017년 이후 오르후스시는 최근 몇 년간 가장 성공적인 유

럽문화도시로 꼽히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르후스 사우스 하버지역의 도시개발과 겔러업 지역 도시 재생 사업에 나서고 있다.

영국 웨스트 오브 잉글랜드 팀 보울스 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학, 정부기관, 지역사회 기관 간 혁신 생태계 수립 등 창의 혁신을 바탕으로 한 도시의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 보울스 시장은 “스페인, 항공 우주 및 응용공학, 로봇공학 및 자율 시스템, 예술, 미디어 및 창의 기술 산업, 스마트 도시 등 다른 도시에 비해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해당 지역이 보유한 전문성을 타 도시와 공유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 북구, 복지 목표 실현 도미노 퍼포먼스 28일 오후 광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북구 복지 비전선포식에서 북구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종사자들이 복지 목표를 표현하는 도미노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세계김치축제 성황 마무리

5만명 방문·110만달러 수출계약 성과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광주김치타운에서 열린 ‘제26회 광주세계김치축제’가 방문객 5만여명을 기록하고 110만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축제 역대 대통령상 수상자, 지역 김치업체, 순천농협, 해남 화원농협 등이 참여한 현장 판매에서는 30t(3억원)의 김치가 팔렸다.

축제에서는 광주 토속 김치와 광주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김치와 전통음식을 전시·시식하는 행사가 열렸다.

특히 고려인 음식 시식 행사에는 6천여 명이 참가하며 인기를 끌었다.

새로 개관한 김치발효식품관에서 열린 발효음식 전시에는 전국의 발효 음식 장인들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백양사 천전암 정관 스님의 사찰 음식 특강에도 많은 시민이 찾았다.

전국 요리대회 가운데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수여하는 ‘대한민국김치경연대회’에서는 장경애(전남 여수)씨가 대통령상

을 받았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에는 최미숙(서울)씨, 문화체육관광상에는 이혜란(서울)씨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광주 김치 업체 트레잔은 미국 ‘올타리 USA’ 등 3곳과 110만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올타리 USA’는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Amazon.com)에 광주에서 만든 김치를 출시, 미국내 한인에게 김치를 판매할 계획이다.

올해 축제에서 새롭게 선보인 용기 연가등, 향아리 방명록, 대형 LED 향아리 카페에도 방문객의 호응이 이어졌다. 김치 축제에 이어 다음 달 18일부터 22일까지 광주김치타운에서는 ‘빛고를 사랑나눔 김장대전’이 열린다.

손경중 광주시 전략산업국장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행사장을 찾아준 방문객과 참여자에게 모두 감사하다”며 “내년 축제에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에 전국 첫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개소

무안군 11월·구례군 12월 개소

세무서와 시·군에서 이중으로 처리해오던 세무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전남에선 처음으로 영광에 개소했다.

전남도와 영광군은 28일 옛 영광읍사무소에서 김준성 영광군수, 정찬균 전남도 자치행정국장, 정순오 서광주세무서장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개소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한 통합민원실에는 국세담당 직원 2명이 상시 근무하고, 탄력적으로 지방세 담당 1~2명이 근무한다. 그동안은

행 다출을 받으려면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시·군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통합민원실 설치로, 국세와 지방세 제증명 발급, 인허가 및 사업자 등록 업무, 민원상담 등을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세무서가 없거나 먼 거리에 있는 납세자 불편지역을 선정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영광군 개소를 시작으로 무안군 11월, 구례군 12월 개소가 예정돼 있다.

“일하고 싶은 전남여성 절반만 취업 기회 제공”

전남여성가족재단, 일하기센터 6년 성과 보고서 발간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전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3만5592건의 취업을 연계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누적 건수가 7만3749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 정도(48.26%)만이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잡은 셈이다. 경력이 단절된 전남 여성의 경우 상용직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 여성 취업 전문가인 전남여성새

로일하기센터 운영 10년째를 맞아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은 9곳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최근 6년간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구직 건수는 2013년보다 179% 늘었고, 취업 연계 건수는 2013년보다 69.6% 증가했다. 이용자 연령대 변화를 살펴보면 여성새일센터를 통해 50~60대 중·고령 여성의 노동시

장 재진입 현상이 두드러졌다. 학력 변화 면에서는 고졸자 비율이 10%p 이상 줄어든 반면 대졸 및 대학원 이상 구직자가 늘어나는 등 고학력 이용자의 증가율이 눈에 띄었다. 경력단절여성의 주요 취업 직종은 사무경리직(25.0%), 보육교사·사회복지사(14.7%), 노인돌봄(14.9%), 음식업(11.1%), 가사·정소직(7.3%)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설·기계·화학·운송(1.8%), 전기·전자(0.7%) 직종은 취업률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전남지역 경력단절여성의 고용 형태는

상용직 61.4%, 기간제 38.2%로 상용직 고용이 높으나 전국 평균(2017년 69.4%)과 비교하면 낮다. 창업은 0.4%로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 자금 조달 등 창업 단계에서 여성의 어려움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임금 수준은 낮은 편에 속했다. 임금은 월급제가 46.9%로 가장 많고, 평균 금액은 최저시급과 생활임금 사이 수준이었다. 연봉제는 평균 금액이 2500만원 이상으로 월급제에 비해 높은 편이나, 전체 임금 형태에서 연봉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0.7%로 매우 낮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 중국서 216만달러 수출 협약 체결

광주시는 20~26일 중국광저우, 상하이, 칭다오에서 개최한 종합수출상담회에서 10건 216만달러 상당의 수출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상담회에 참가한 광주 지역 기업은 뉴세템테크, 엔트넷, 워킨위드, 제이투모우엔지, 드림씨앤지, 맥커뮤니케이션즈, 신성테크, 아이벡, 찬솔, 한국씨엔에스 등 10곳이다.

시는 수출 세미나와 설명회를 열어

중국 시장의 유통 채널과 이해도를 높이고 현지 시장 조사를 했다.

지역 기업에서 만든 여러 제품이 중국 바이오로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받아 수출 경쟁력을 확인했다.

주재희 광주시 투자통상과장은 “지역 기업이 지역경제 활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입 등 다양한 수출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MODERN AND CONTEMPORARY ARCHIVE
남원다움관

어제를 추억하고 오늘을 기록하다

2층

제1전시실 공간의 기억

- 인력거 체험
- 로즈양장점
- 음다방
- 행복사진관
- 정화극장
- 서원이발관

1층

남원포레스트 Namwon Forest

- 휴식공간 Healing Park

제2전시실 나도 공무원

- 공설시장
- 남원예촌
- 남원다움관
- 관하루
- 서문주차장

전북 남원시 검멀길 14 남원다움관
페이스북 facebook.com/남원다움
인스타그램 instagram.com/namwon_archive